

# 신한 독독독 200

신한대학교 소식지



Shinhan University  
Newsletter

2021  
03



## Globalization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의 힘!

- ISSUE 1 - 신한대학교 개교 50주년 특별 인터뷰
- ISSUE 2 - 토지행정학과 취업률 상승
- ISSUE 3 - 우즈베키스탄 학교 설립
- ISSUE 4 - 중국대사 첫 특강

- 온라인 교육시스템, SOUP
- 신한대학교 비대면 학술제 개최
-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 개최
- 간호대학 인증평가 3주기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개최  
<2020 언택트 페이스 오브 아시아>  
태권도학과 온라인 대회  
Culture 서평



표지제호와 함께 표기된 위의 패턴은 점자로 '특독'을 표현한 것입니다.

## COVER STORY

신한대-몽골 생태생명공학연구센터 개소 등 글로벌 대학과의 MOU를 실현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Globalization을 G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 발행인 총장 강성중 • 발행처 신한대학교 신문사 |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 Tel. 031 870 3206
- 발행일 2021. 03. 20 • 편집주간 이선민 교수 • 디자인자문 김기순 교수 • 편집장 조희지 기자
- 디자인 기획 신한대학교 홍보팀 • Tel 031 870 3407 • 정가 8,000원

## Contents

- 01\_US.KOREA.SOL.1010.599.GX
- 02\_이념과 비전
- 04\_강성종 총장, 개교 50주년 특별 인터뷰
- 06\_온라인 교육시스템, SOUP
- 08\_편집장 논설
- 10\_우즈베키스탄 학교 설립
- 14\_사회적 가치 아카데미 개최
- 16\_탈분단 경계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개최
- 18\_중국대사 첫 특강
- 20\_2020 연택트<페이스 오브 아시아>
- 22\_비대면 학술제
- 26\_취창업지원처 해외취업 비대면 설명회
- 28\_학생상담센터 비대면 상담
- 30\_신한멘토링 / 스터디
- 32\_학과 별 비대면 행사
- 34\_간호대학 인증평가 3주기
- 36\_태권도학과 온라인 대회
- 38\_토지행정학과 취업율 상승
- 40\_K-POWER 건강보조식품
- 42\_대담한 기자들 : 비대면 강의에 대하여
- 46\_비대면 공연
- 48\_강아지와 함께, 전시회
- 50\_코로나 극복 감동 영화
- 52\_이모저모
- 58\_기부금 현황
- 60\_편집후기

# SHINHAN UNIVERSITY SOLUTION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창조와 창조·융합교육의 중심으로 10년 내 10위권 진입 목표 및 5세부터 99세까지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5세부터 99세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 ✓ 2021 수시모집 5년 연속 경기북부 1위!
- ✓ 창조와 융합·지구촌 교육의 중심!
- ✓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 시대!



[US. KOREA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미래교육 솔루션
[1010]	10년 내 1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599]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향
[GX] Global Express	글로벌 시대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



# 대학이념

**창학이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대학사명**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으로  
새로운 시대 발전에 공헌한다.

**교육목적**  
기독교 사랑을 바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선도적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 섬김을 위한 영성교육
- 인류를 위한 시민교육
- 국가를 위한 실용교육
- 자아를 위한 전문교육

**교훈**

- 사랑과 봉사
- 소통과 공감
- 지성과 창의
- 도전과 발전

**인재상**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신한국인(Shinhan 國人)'양성

- 사명인
- 세계인
- 실용인
- 학습인

## Vision Statement

교육품질로 도약하는 취업명문  
New-versity, 신한대학교

# 대학비전

## Vision Slogan

START for New-Quality

## Strategy Goal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인재  
더 나은 교육

## Strategy

START Q 전략



- S 신한국인(Shin-Han國人)을 양성하는 New-versity
- T 내일(Tomorrow)의 비전을 함께 실천하는 New-versity
- A 행정(Administration)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New-versity
- R 지역(Region)발전에 기여하는 New-versity
- T 재능(Talent)을 함양시키는 New-versity
- Q 품질개선(Quality)활동을 통해 도약하는 New-versity

개교 50주년 특별 인터뷰

## 위기를 기회로, 세계를 향한 발걸음

강성중 총장에게 듣는다... 신한대학교의 지난 50년, 다가올 50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것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의정부 망월사역 앞에 세워진 신한대학교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기도 하며 50년을 성장해왔다. 이를 기념하여 신한대학교의 지난 50년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50년을 구상 중인 강성중 총장을 만나보았다.

### 신한대학교의 지난 50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신한대학교는 대한민국과 경기북부가 시대적 아픔을 겪고 있던 1970년대에 세워졌습니다. 모두가 가난으로 고통받고 밥 한끼가 아쉬웠던 시절이었죠. 설립자께서는 이에 대한 답을 얻고 아픔을 해결하게 위해 대학의 문을 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이 밥 먹여 주냐고 했던 사람들에게 책은 밥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끼 밥이 아니라 평생 먹을 밥이 될 거라고요. 현재 신한대학교는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을 넘어 보란듯이 세계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신한대학교의 분교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반세기 동안 겪었던 시련과 도전이 세계 속의 대학이라는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 줄곧 '위기는 기회'라고 강조하셨는데, 이를 신한대학교의 지난 50년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신한대학교의 지난 50년 중 위기가 아닌 시절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면 우리에게 좋은 경험,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소멸하거나 흑역사로 남게 되겠지요. 신한대학교는 설립 시작부터 위기였습니다. 가난에 짓눌리고 최소한의 보건 위생과 의료혜택마저 부족하던 시절 대학을 설립한다는 발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분위기와 맞지 않다가 손가락질 받던 그 앞서간 생각이 지금의 신한대학교를 만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이용한 성공 사례인 겁니다.”

###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며, 신한대학교는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사실 어떤 변화든 가장 나중에 변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의 변화는 태생적으로 느리고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데, 현재 코로나가 이 공식을 깨고 있습니다. 생각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게 이러한 현상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기존 생각이 파괴되고, 새로운 생각이 창조되는 시대입니다. 신한대학교는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교육과 글로벌 거점의 중심학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 S.O.U.P (Shinhan On-Off line University Performance)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면서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신한대학교는 바로 그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 2019년 정시모집 경쟁률(4년제) 전국 3위, 2020년 신입생 총원을 100%라는 성과를 냈는데, 이러한 성장세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전부터 경기북부는 수도권에서 다소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서울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권역을 뻗어 나갈 때, 경기북부는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힘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남북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이제는 경기북부가 차세대 수도권의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대학이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과 지속적인 학교 발전에 대한 기대감 등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 교육의 질 개선과 변화를 통하여 성공을 위한 수요자 중심 신한대학교로 변화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이 우리 대학 성장세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신한대학교의 미래 교육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코로나가 인류사회에 끼치고 있는 영향이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이 또한 성장통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한대학교의 미래 교육 방향은 온라인 교육과 글로벌 거점 학교의 육성에 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은 완벽한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본교와 분교의 개념이 아니라, 학교는 서로 연결되고 학생들은 서로 소통하고 교수자들은 서로 교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 대학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는 중입니다. 향후 이를 이용하여 강의 제작 스튜디오, 교수 양성 프로그램, 강의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신한대학교의 앞으로 50년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지난 반세기는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이었다면, 미래의 50년은 과거를 재조명하며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50년의 시작을 위해 50층짜리 기념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기념관에는 메디컬센터와 금융센터, 스타트업과 벤처 취업센터,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신한대학교와 경기북부가 공존하는 것, 경기북부가 한국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중심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춰 국가와 사회, 문화 그리고 개인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강성중 총장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19’라는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코로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기를 바라보는 자세의 전환이 시급한 만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의 좋은 자리를 일찍 알아보기 위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한대학교의 지난 50년 중 위기가 아닌 시절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면 우리에게 좋은 경험,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 신한대학교만의 온라인 교육시스템, SOUP

신한대학교만의 온라인 교육시스템, SOUP AC(After Corona) 시대를 넘어 정보사회의 교육을 선도하다.

전대미문의 세계적 전염병 코로나19(COVID-19)가 중국에서 시작되어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교는 개강을 2주간 연기하였고, 개강 이후에도 대부분의 수업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비대면 수업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을 혼란에 빠져들게 하였다.

이후 대학교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는 부실한 비대면 수업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교육혁신센터는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신한대학교 재학생 758명과 교수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러 통계분석을 통해 신한대학교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고, 2학기를 위한 5가지 중점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이버캠퍼스의 용량 및 속도 개선, 둘째, 교수의 신속하고 상세한 피드백 실시, 셋째, 적절한 분량과 수준의 과제, 넷째, 교수의 동영상 콘텐츠 개선, 다섯째, 교수의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학교의 지원이었다.

5월 28일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는 LG헬로 나라방송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하여 "AC(After Corona) 시대의 교육의 중심은 온라인 교육입니다. 시간·공간을 뛰어넘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넘는 평생교육, 국경을 넘는 교육 네트워크를 신한대가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신한대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SOUP'입니다. SOUP은 'Shinhan On-Off-line University Performance'의 약어로 스프라일이 영양도 많고 소화도 쉽게 되는,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는 온라인 교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교육을 총괄하는 SOUP 센터를 만들어 강의 제작, 교원양성, 강의 리모델링을 전담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대학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6월부터 7월까지 교내·외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가 수차례 개최되었다. 이어 교무위원회의 의결로 SOUP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7월 17일 SOUP 위원회 첫 회의에서 비대면 수업에서 사용할 동영상 콘텐츠를 학기 전에 제작하고, 동영상 콘텐츠를 공개한다는 'SOUP의 원칙'이 결정되었다.

1학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7월 중순, 교육혁신센터 5가지 개선점과 SOUP 2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2학기 비대면 수업 준비가 시작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만드는 것이었다. 신한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제공될 동영상 콘텐츠를 동영상 수업계획서, 강의 동영상, 수업 동영상으로 구분하고 기준 및 지침을 만들었다.

수업계획서는 수업의 시작점으로, 교수와 학생이 처음으로 소통하는 중요한 콘텐츠이다. 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 화면으로 제공되는 기존의 텍스트 형식의 수업계획서만으로는 학생들이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교수님이 얼굴을 보이면서 수업계획서를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 수업계획서를 제작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교과목 수업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였다.

강의 동영상은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한방향으로 전달하는 콘텐츠이다. 현실을 반영하여 이론 교과목은 10주차 분량, 이론+실습,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3주차 분량의 강의 동영상을 학기 시작 전에 제작하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강의 동영상에 교수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였다. 강의 동영상 사전 제작으로 대부분의 교수들이 방학기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강의 동영상 제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수업 동영상은 교수가 대면 수업(강의실/온라인) 장면을 촬영 또는 녹화한 콘텐츠를 수업 후 1주일 내에 업로드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출석 학생들이 복습하거나 결석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의 교수 활동,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더불어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웨슬리 베이커(J. Wesley Baker) 교수가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플립러닝(Flipped Learning)도 학생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실험·실습·실기 과목은 과목의 특성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 비해 이론 과목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비대면 수업에서는 실시간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므로 3주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지정하고 교수와 학생들이 강의실이나 온라인상에서 상호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출석용 과제는 폐지하고,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신속한 피드백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사이버캠퍼스(LMS)는 온라인 교육의 모든 것이 진행되는 플랫폼이다. 접속문제, 영상 파일 업로드 시간문제, 재생문제 등 1학기에 발생했던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사이버캠퍼스 내에서 모든 상호작용 활동(질문, 퀴즈, 토론, 과제 등)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에게 안내하고 사이버캠퍼스 활용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잘 될 수 없듯이, 시행착오도 있었고 미흡한 점도 많았다. 특히, 악화된 학교 재정 상황으로 인하여 교수들의 동영상 콘텐츠 제작에 충분한 물적·인적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노력하였기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1학기처럼 힘들고 혼돈스러운 상황이 재발되지 않았고, 새로운 방향의 시작점을 지나게 되었다.

정부가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변화를 일시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로 판단하고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2025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중 디지털 뉴딜에서는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과 교육콘텐츠 확충을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의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 학교의 전략 방향과 교육부에서 국가의 전략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학기 현시점에서 교육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위한 학교의 물적·인적 투자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 학교 구성원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합쳐진다면 다른 대학교와 차별화되는 신한대학교만의 SOUP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혁신센터 배상현 연구원



## '성장을 위하여 도전하라'

신한대학교는 1971년 신홍보건전문학교로 시작하여 1979년 신홍보건전문대학, 1980년 신홍실업전문대학, 1988년 신홍전문대학, 1998년 신홍대학, 2011년 신홍대학교, 2014년 신한대학교로 발전해 어느새 5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한대학교는 지난 50년간 글로벌 대학으로 크게 도약하며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청두대학교와의 업무협약, 해외 대학들과의 MOU 체결, 타국 신한대학교 설립 등 여러 방면으로 도전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신한대학교는 다양한 기술과 독자적인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을 보여준 신한대학교의 지난 50년을 높이 평가하며, 다가오는 50년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거대한 첫걸음, “우즈벡에 신한 캠퍼스 연다”

수도 타쉬켄트에 ‘신한 NKU’ (New Korea University) 개교  
우즈벡 정부, 토지 건물 무상 제공... 6천평 대지에 5층 건물 6개동 계획  
간호 국제관광 패션 등 3개 학과 선진교육 ‘글로벌 인재 육성’



세계화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엔 이미 우리의 삶에 스며 들기 시작했고, '초 연결 사회'는 사물과 사물뿐만 아니라 국경과 인종의 경계까지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의 무대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만 한다. 이에 여러 기업과 기관들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세계의 흐름을 읽어가며 글로벌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교육 기관인 대학도 피해갈 수 없었다.

몇 해 전 종합대학으로 새 출발한 신한대학교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 여건의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맞닥뜨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를 위한 시민교육', '대학 국제화 역량 강화(Transition to global state of Shin-Han)'를 각각 대학 이념과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설정했다. 이는 국가를 넘어 '인류' 공영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신한인들을 배양한다. 전 세계가 신한대학교를 유수의 대학교로 인정하는 '글로벌 전략 목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계로 뻗어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신한대학교는 2021년 3월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NKU(New Korea University)'를 개교할 예정이다. 신한대학교는 2018년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와 대학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2019년 5월 사전 협약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 9월 'SUT(Shinhan University in Tashkent)' 설립을 위한 최종 조인식을 거행한 바 있다

SUT는 본래 2020년 9월에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해 개교가 연기되면서 작은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신한대학교는 이러한 위기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 몇몇 크고 작은 변화와 발전을 기꺼이 감행했다. 우선, 기존 명칭 'SUT(Shinhan University in Tashkent)'를 '신한(新韓)'의 의미에 맞추어 '새로운 한국'의 New Korea로 대학명을 새롭게 정식 제정하였다. 교명 변경 이외에도 5단계에 걸친 NKU 캠퍼스 시설 계획안 수립, NKU 운영 계획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신한대학교는 NKU 개교 관련 사업에 꾸준히 힘을 실어왔다.

NKU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대학부지 및 토지와 건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설립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캠퍼스를 건설했다는 것은 신한대학교가 글로벌 교육 리더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NKU 캠퍼스 시설계획안에 따르면 NKU 캠퍼스는 총 대지면적 20,390.5㎡(6,168.1평) 규모로 조성되고, 여기에 최대 5층짜리 건물 총 6동(행정 및 강의동, 학생편의시설, 컨벤션센터, 식당,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19,852㎡ 규모로 들어선다. 이외에도 NKU 상징 조형물, 각종 실외 활동을 위한 운동장과 야외 공연장, 차량 편의를 위한 지상 및 지하 주차장 등이 NKU 캠퍼스에 들어설 예정이다,

NKU는 신한대학교의 선진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3개 학과(▲간호학과 ▲국제관광경영학과 ▲패션디자인학과)를 설치하고, 향후 학과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신한대학교는 3개 학과의 학습 지원을 위해 강의실과 교원 운영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이

다. 먼저 강의실은 각 학과의 전공을 위한 전공 강의실, 외국어 수업을 위한 교양 통합 강의실, 디지털 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학습실로 구성해, 개교 1년차에 총 17개, 4년차 이후에 총 63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원 운영의 경우, 신한대학교 전임 교원(1년차 8명, 4년 편제 완성 시점 26명)을 파견하고 현지 전문가(1년차 28명, 4년 편제 완성 시점 110명)를 교원으로 채용할 예정인데, 이는 선진 교수법과 신한대학교 교육 경험을 살린 우수교육과정을 전파하면서도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수요와 여건에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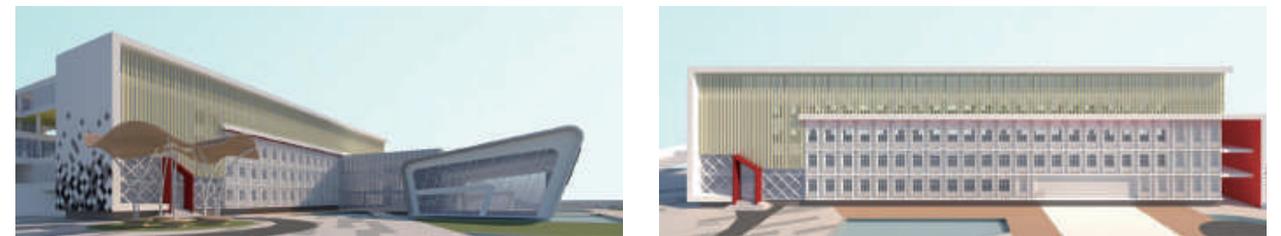
NKU는 교육과정을 '융·복합 특성화 교육과정'과 '글로벌 인재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실무적·학문적 욕구의 학생 특성과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를 결합한 맞춤 교육 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융·복합 특성화 교육과정'은 기존 대면 방식의 교육, 차별화된 디지털 교육, 다양한 전공이 연계되는 Micro전공 인증제로 구성되며, '글로벌 인재 교육과정'은 4차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국제 표준에 부합되는 언어 교육,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으로 구성된다. 또한, NKU는 학위과정으로 2+2 과정과 우즈베키스탄 현지 4년 과정을 내세웠다. 2+2 과정은 NKU 2년과 신한대학교 2년으로 나뉘어, 2+2 과정을 수료하는 학생들은 NKU에서 이론과 Micro전공 교육을 중점으로, 신한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고급 실무교육을 중점으로 학업을 수행하게 된다. NKU는 이를 통해 융·복합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한대학교는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와 협의한 사항대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NKU 산하 평생교육원도 개설할 예정이다. NKU는 평생교육원 과정 이수자들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함으로

써, 현지 시민들의 자아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대학을 자유롭게 개방하여 대학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전문분야의 새로운 지식, 실무 위주 기술에 대한 학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진로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신한대학교는 NKU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실무중심 최고(BEST) 전문가 양성대학'이라는 비전을 세워, 머나먼 우즈베키스탄 땅으로 발을 내딛었다. 신한대학교의 실용학문 중심 학과운영과 교육 시스템은 이미 여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교류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라는 더 넓은 무대로 발을 넓힌 셈이다. 신한대학교가 반세기에 걸쳐 쌓아온 교육 노하우와 선진 교육시스템이 두루 적용된 NKU가 우즈베키스탄 최고 명문 대학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주 기자



# 상생하는사회를 꿈꾸며, '사회적 가치, 같이해요' 신한대,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 개최

낯선 단어인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점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열 두 번째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에 사회적 가치 배점을 대폭 확대했다.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명준)과 함께 2020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 '사회적 가치, 같이해요'를 개최했다.

2020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 '사회적 가치, 같이해요'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전략적 경영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바를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국내 기업 및 조직의 사회적 가치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의 도전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아카데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존 계획과 달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10월 23일 1회차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1월 6일, 11월 20일, 12월 4일 차례로 과정이 이루어졌다. 강의는 총 4가지 모듈로 나누어 실무 경험·노하우 및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의 강의와 멘토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아카데미는 공공부문 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의 사회적 가치 관련 잘못된 논의를 바로잡으며, 국내 사회적 가치 창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여기에 더하여 아카데미에 참여한 대학생이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인식 개선을 통해 학생 리더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업시장에의 사회적 가치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취업률을 제고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아카데미는 향후 사회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모듈 1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잡았다.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으로 총 2개의 강의를 진행했다. 김성진 사회적 가치 센터 대표와 신한대학교의 이현 사회적 가치 추진 단장이 강의를 맡았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는 13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의 유지, 보건복지의 제공,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등이 있다. 사람의 좋은 삶을 직접적으로 챙기는 일련의 가치가 사회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모듈 2에서는 한층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 창출 거버넌스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3개의 강의로 이루어진 모듈 2파트는 인식 제고 및 추진 역량 강화, 사회적 가치 전략체계 구축, 성과 관리 및 리포팅의 토픽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파트에서는 경영일 EY 한영 회계법인 상무, 오선태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이기환 더와이파트너스 이사가 강사로 활약했다.

모듈 3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우리와 가장 가깝다고 느낄 수 있는 '인권 및 노동'부터 '환경/안전/보건(EHS)', '반부패 및 공정경쟁(윤리경영)', '제품 및 서비스 책임(소비자)', '지역사회 참여(사회 공헌)'까지 총 5개의 토픽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소개했다. 해당 파트는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CSR 경영센터장과 이동규 동아대 긴급대응 기술정책 연구센터 소장, 박장호 연세대 연구원 객원 교수, 문은숙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제품안전 작업반 의장, 그리고 박석희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듈 4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 도전과 과제를 이야기했다. 이는 강성중 신한대 총장이 진행하였다.

'사회적 가치, 같이해요' 아카데미는 개론적인 논의를 넘어 방법론을 다루는 사회적 가치 관련 국내 최초의 심화교육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

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 최고의 현장 실무 경험·노하우 및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에 의한 강의와 멘토링을 진행하고 다양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무진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도 있기 때문에 향후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큰 아카데미라고 볼 수 있다. 참가율이 70% 이상일 경우, 신한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의 발급이 가능하고, 교육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보다 많은 참여를 장려했다. 이번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강의 내용은 가이드북 형태로도 출간될 예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아카데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한대학교 사회적 가치 추진팀 김창훈 팀장은 "이번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획하고 준비한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축적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0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가치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이를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사회의 분화를 방지하고 상생의 가치를 확대하는 '사회적 가치'는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회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핵심가치로 자리할 것이다.

강슬비 기자, 박해진 기자



## 사회적 가치, 같이해요

**2020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  
교육 참가비 전액 무료

**사회적 가치, 같이해요**

신한대학교 사회적 가치 추진팀과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명준)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전략적 경영 접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같이해요'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벤트 일정은 아래와 같다. (각 세션마다 1시간 30분) (총 4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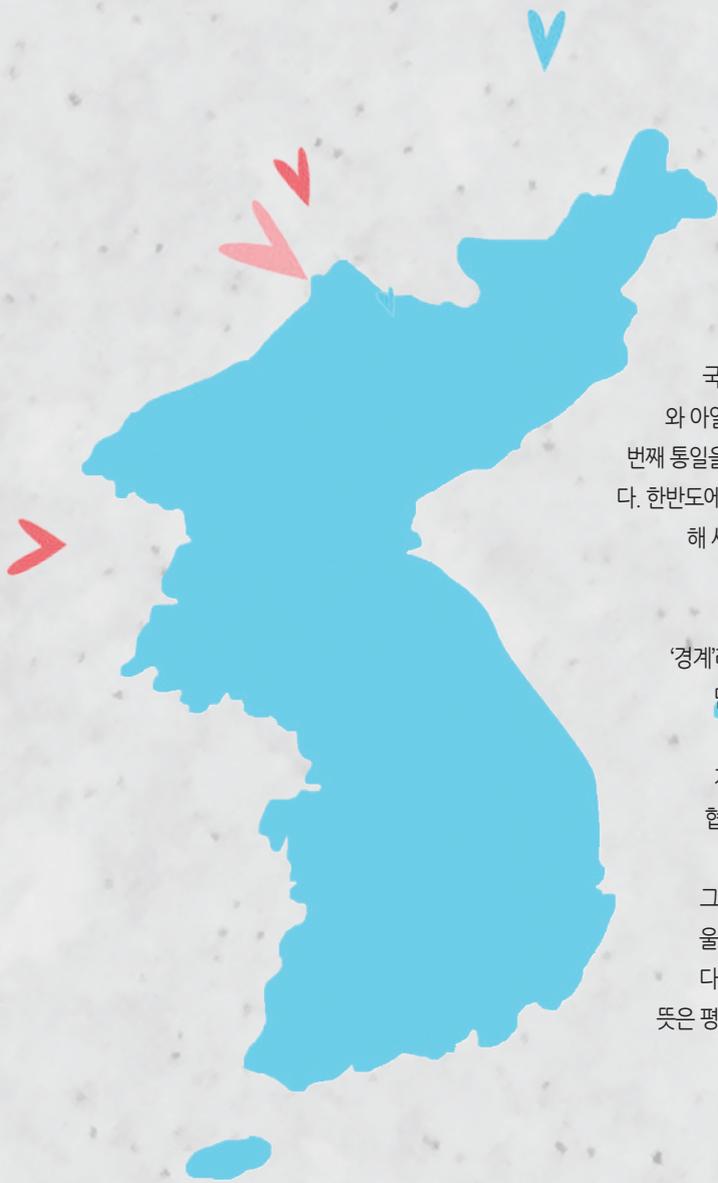
- 1. 10월 23일 (목) 1회차 프로그램
- 2. 11월 6일 (금) 2회차 프로그램
- 3. 11월 20일 (금) 3회차 프로그램
- 4. 12월 4일 (금) 4회차 프로그램

신청처: 신한대학교 기획협력팀 (02-930-3184) / 02-930-3185 (내선 10번) / 02-930-3186 (내선 11번)

일차	날짜	시간	주제	강사
1차	10월 23일 (목)	13:00 ~ 14:30	사회적 가치의 이해	김성진 (사회적 가치 센터 대표)
2차	11월 6일 (금)	13:00 ~ 14:30	사회적 가치의 추진 전략	이현 (신한대학교 사회적 가치 추진팀 단장)
3차	11월 20일 (금)	13:00 ~ 14:30	사회적 가치의 성과 관리	김창훈 (신한대학교 사회적 가치 추진팀 팀장)
4차	12월 4일 (금)	13:00 ~ 14:30	사회적 가치의 확산	강성중 (신한대학교 총장)

분단극복과 평화의 길, '반동회의'에서 찾는다

#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반동회의' 통해 본 한반도 문제 국제학술회의 개최



신한대학교 부설연구기관인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의 명칭 중 '탈분단'은 남북 분단의 극복을 지향하되 그 지향점은 통일을 포함해 다양한 평화공존의 방식이 가능함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한반도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통념이 있지만, 이 통념은 틀렸다. 예를 들어 중국과 타이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도 여전히 분단 상태이다. 예멘은 첫 번째 통일이 실패한 뒤 무리하게 두 번째 통일을 이뤄냈지만, 그 결과는 내전과 외세의 개입, 수많은 난민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한반도에서 분단을 넘어선 상태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세계 여러 지역의 경험을 참고하며 상상력을 넓혀본다는 취지가 바로 "탈분단"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다.

'경계'라는 단어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경계연구를 표방한 연구기관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다.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두 세력이 대립하고 있을 때 성급하게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차라리 두 집단 사이에 경계를 갖고 상호 체제를 인정하며 교류와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체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평화프로세스의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계'는 갈등과 평화, 단절과 교류, 부정과 긍정의 가능성을 모두 담고 있다. 그래서 연구원의 명칭에는 다른 지역의 경험을 남북 화해와 평화의 과정에서 배울 뿐 아니라, 경계연구라는 큰 분야에서 한반도의 사례를 이론적으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의 평화프로세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뜻은 평양 출신으로 남북의 화해와 공존을 갈망했던 설립자 강신경 목사의 유지와 맞닿아 있고, 접경지역에 자리 잡은 신한대학교의 사명과도 연결된다.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수업조차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들고, 각종 학술행사와 연구교류가 멈추거나 심각하게 지장을 받는 해였다. 2020년은 전국의 모든 연구기관들의 한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에게도 예측하기 힘든 일의 연속이었다. 2년 전부터 해마다 일본 도쿄에서 열었던 '한일 양국 전문가 회의'는 두 번이나 연기되었고, 개최 장소를 한국으로 변경한 뒤에도 성사 여부는 불투명했다.

'한일 양국 전문가 회의'는 국가기관의 지원으로 양국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고 방향을 모색할 목적으로 조직된 비공개회의이다. 탈분단연구원이 여섯 번째로 주관한 '반동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문제: 아시아적 관점과 탈분단의 과제'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2020년 8월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11월 19-20일 양일간 웨스틴조선에서 진행되었고 한국 측 참가자는 현장에서, 해외 학자는 온라인으로 참가해 학술회의를 진행했다.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사회의 특성, 즉 남북분단으로 인한 개발의 지연, 군부대가 차지하는 비중, 주한 미군의 주둔, 그리고 전통적인 촌락구조와 그의 해체를 천착해 조사연구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봉사하는 것도 탈분단연구원이 해야 할 일이다.

탈분단연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연구용역을 수주해 2020년 11월 1일부터 1년 6개월 예정으로 양수발전소 건립 예정지인 포천시 이동면 일대의 민속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202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나 경기도의 유관기관,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강좌와 워크숍을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1년 1월에는 (가칭) 『경계연구』를 창간해 한국에서 최초로 경계연구를 주제로 하는 학술지를 발간한다. 『경계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를 목표로 하여,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논문들을 게재하며 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얼마 전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며 연구원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주된 개정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연구원의 연구 분야를 사회과학뿐 아니라 인문학까지 포괄하도록 넓힌 것. 둘째, 부원장과 겸임연구위원 등의 직제를 신설하고 연구센터를 정비·확대한 것이다. 이는 모두 2021년 이후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아울러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용역과 사업용역을 수주하기 위함이다.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은 "대학의 본령은 연구와 교육이다. 학술활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에 그치지 않고, 이들 활동의 성과를 학생들과 공유해야 한다"며 "우리 학교의 다른 기관에서도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 연구원도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 현장답사, 분단의 극복과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석현 기자



#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신한대를 방문한 까닭

주한 중국대사, 신한대에서 '동북아 평화시대 구축 위한 한·중 교류 중요성' 주제 강연  
“한·중은 수망상조(守望相助)에 풍우동주(風雨同舟)의 관계”

지난 7월 2일, 신한대학교 벨엔관에서 '동북아 평화시대 구축을 위한 한·중 상호교류의 중요성 및 역할'을 주제로 싱하이밍(邢海明) 제20대 주한 중국대사의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은 신한대학교와 의정부시가 협력하여 서로 상생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싱하이밍 대사의 “City(도시)가 University(대학)를 만들고, University(대학)가 City(도시)를 완성한다.”는 말처럼, 이번 강연은 중국인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G2 국가인 중국대사관 측과 신한대학교 그리고 의정부시와의 소통·협력·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싱하이밍 대사는 남북 업무만 20년 동안 맡은 중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평소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역대 중국대사 중 한국어가 가장 능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통역가 없이도 원활하게 강연이 진행될 수 있었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에서 네 차례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의정부시를 여러 번 방문했다며 한중관계, 경제무역협력, 지방교류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에 진행된 특강은 싱하이밍 대사가 우리나라에 주중대사로 부임한 후 최초로 행해진 대학특강이다. 싱하이밍 대사는 최근의 상황을 소개했

다. “올해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 한·중 양국민이 수망상조(守望相助/서로 살피고 지키며 돕다.), 풍우동주(風雨同舟/비바람 속에서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듯 어려움 속에서 일심협력한다)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의 참뜻을 보여줬다. 한·중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인적 왕래 편리화를 위해 ‘패스트 트랙’을 개통하여 한국 기업인 5,000여명이 국경을 넘어 업무복귀, 조업 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한·중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중 수교 이후 28년 동안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양국은 서로 협력해 난관을 극복해 나갔으며, 한·중 관계도 ‘이익공동체’에서 ‘책임공동체’, 이제는 ‘운명공동체’로 격상됐고, 현재 한·중 지방도시 간 교류로 190여개 도시가 우호 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인적 왕래도 1,000만 명 시대에 들어섰고, 교역량은 3,000억 달러를 자랑하게 되었다. 국가 간 교류는 국민 사이의 친밀감에 달려 있다. 의정부시도 단둥시, 황스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경제발전협력에 대해서는 한 차례의 전염병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흡입력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패스트 트랙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방역 전시상황에서 방역과 왕래를 병행하는 뉴노멀로 이끌자고 제안하기

도 했다. “중한 양국이 자본, 기술, 시장 영역에서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고 금융 분야에서 협력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협력을 심화하고, 제3국 시장개척에도 공동으로 나섭시다.”

중국인 한국 국민이 자국의 실정을 토대로 선택한 발전의 길을 존중하며,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온 성과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축사를 보냈다. 오랜 기간 쇠약했던 중국은 어느새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다. 중국인민들은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을 실현하였으며,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편리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동시에 각국과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공동번영을 지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동북아 평화를 구축하자고 제언했다.

강연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도자들과 대학 구성원들은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신한대학교를 중심으로 의정부시 및 경기북부와 중국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에 대한 좋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행사를 기획한 장인봉 대외협력처장은 이에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유학생을 3,000명, 30,000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한대학교가 국제적인 위상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세분의 리더, 강성중 총장님, 안병용 시장님, 싱하이밍 대사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그 분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서로의 발전을 축복하고 응원하신다는 것에 큰 기대를 가집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신한대학교가 의정부시 그리고 G2 국가인 중국과 함께 열어갈 큰 길에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양국의 호혜 협력에 큰 활기가 가득차고, 지방 간 우호 교류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중 협력 발전의 새로운 장을 함께 만들어 나갈 신한대학교의 앞날을 기대한다.

박희진 기자



신한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한 중국대사  
邢海明  
2020.7.2



## ‘2020 언택트 페이스 오브 아시아’

80인 모델의 첫 ‘언택트’

2020 언택트 페이스 오브 아시아는 28개국에서 엄선된 80명의 모델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세계 최초 언택트 모델 콘테스트이다. 이는 글로벌 모델의 꿈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이며, 최종 상금 1억 원을 놓고 펼쳐지는 영상 콘텐츠 대회이다.

10월 6일, 80인의 예선 합격자가 발표되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모델들은 스테이지마다 정해진 미션을 통해 경쟁을 펼치게 되며, 이를 통해 약 1,800여 편의 영상 콘텐츠가 제작된다. 모델들이 직접 기획 및 촬영을 해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하는 것이 해당 대회의 첫 단계이다. 이후 유튜브 조회 수 및 심사위원 평가, 온라인 관객 투표로 소통에 중점을 둔 공정함 심사를 통해 결과가 나온다.

결과를 통해 1차 합격 40명을 발표하면, 탈락자 중 10명이 패자부활전을 통해 10명이 다시 기회를 얻는다. 모델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같은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면 2차 합격자 30명이 선정된다. 세 번째

미션을 통해 20여 명의 합격자를 선정하고, 탈락자들은 다시 패자부활전을 통해 6명이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간다. 이후 26명의 참가자는 1:1 데스매치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13명의 합격자가 선정되고, 파이널 미션이 진행된다.

13명의 합격자는 파이널 미션으로 화보, 런웨이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기획한다. 파이널 라운드 역시 언택트로 진행되며 특별 제작한 가상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의 상금이 부여되고 한국 패션위크에 참가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신한류 슈퍼루키’

종합대학 출범 이후, 신한대학교가 특화 전략으로 내세우는 분야 중 하나는 문화·예술 분야로, 공연예술학부 연기전공, K-POP전공, 모델콘텐츠전공, 태권도전공을 신설하며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매년 ‘신한류 슈퍼루키 모델 선발대회’와 ‘K-POP 공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경기 북부 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중 <신한류 슈퍼루키 모델 선발대회>는 한국 참가자뿐만 아니라 해외 6개국에서도 참가자를 선발하여 국내 무대에서 경합을 통해 결선을 치르게 된다. 해외 거둬들일수록 우수하고 가능성 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신한대학교와 협력관계에 있는 여러 해외 대학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인프라와 인재 풀을 확보하고 있다. 신한류라는 명칭에 맞게 선발대회를 통해 아시아권에 신한대학교와 모델 유망주들을 알리고 스타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해서 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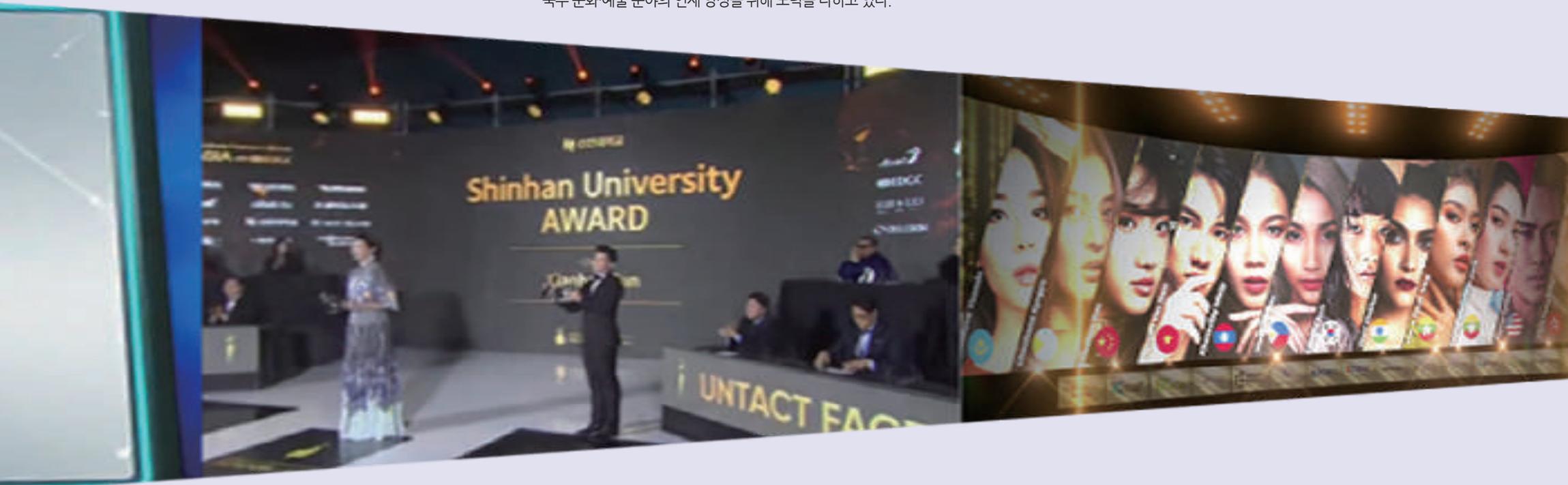
신한대학교는 세계 100대 대학에 줄을 서는 것보다 세계에 100개 대학을 만드는 After Corona 시대의 방식을 추구한다. <2020 언택트 페이스 오브 아시아>가 바로 신한대학교가 주축·주관하는 <신한류 슈퍼루키 모델 선발대회>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인종과 종교, 이념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현재 모델 산업은 단순히 이미지와 신체적인 능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적 측면이 모델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에 단순히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이미지만 보고 선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진행되는 매 스테이지를 유심히 관찰한 후 합격자를 결정한다.

‘세계 속’으로의 전진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은 코로나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언제나 그 시대의 미래를 그려 나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는 늘 그랬듯이 앉아서 미래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미래를 버선발로 마중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도 문화·예술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과 결과물들을 만들고 제시하고 시도할 것입니다. 예술 교육은 창의성을 낳고, 그 창의적인 마인드는 혁신과 발전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둘러싼 환경, 사회와 소통을 하게 해주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신한대학교가 문화·예술 분야를 육성하는 이유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며, 신한대학교에게는 <2020 언택트 페이스 오브 아시아>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새로움에 겁내지 않고 도전하며 수많은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는 ‘공연예술학부’와 그 속에서 열심히 빛을 내어 세계적으로 뻗어 나아가는 ‘모델콘텐츠학과’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한다.

이정민 기자



# 온라인 콘텐츠 문화 선도하는 신한대, 국내 최초 언택트 학술제

빈 교정에도 마음만은 열정으로 가득 찬 신한대학교 학생들

온라인 콘텐츠 문화 선도하는 신한대, 국내 최초 언택트 학술제  
빈 교정에도 마음만은 열정으로 가득 찬 신한대학교 학생들

신한대학교에서는 12월 10일~ 11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학술제가 진행됐다. 기존의 학술제는 박람회 형태로 교내에 체험부스, 전시부스 등을 설치하여 학과마다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졸업 작품 및 학과 홍보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많은 참가자가 타 학과의 전공지식을 체험할 수 있는 형식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학술제는 실시간 방송 촬영과 자체 제작 드라마 영상물 송출, 온라인 댓글 이벤트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학과별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비대면 온라인 학술제'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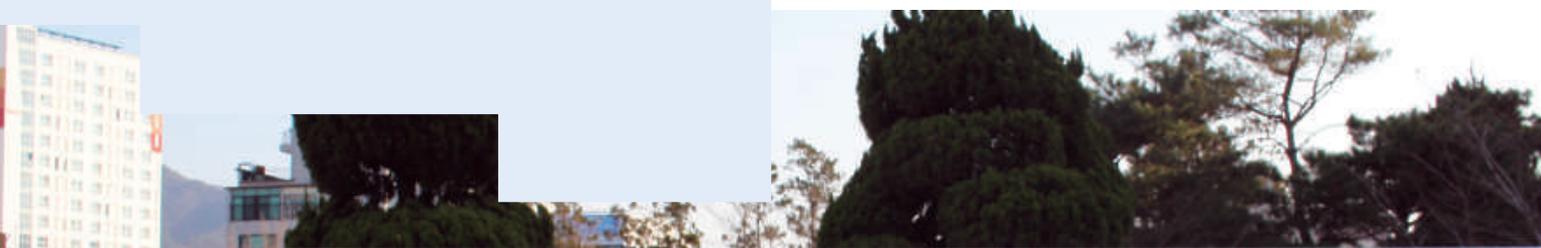
간호학과는 기존 재학생, 신입생들을 위해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학교/학과 관련 궁금증 설명을 영상에 담았다. V-log 형식을 이용하여 간호학과 건물인 베데스다관 시설과 교학 팀, 학과 행사 등을 소개했다. 김동현 간호학과 부학회장은 이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딱딱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방식이 아닌 V-log 형식의 학술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저희 학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강윤혁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 학회장은 ‘타 학과와는 다른 차별화된 콘텐츠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첫째로 ‘드론 촬영’을 말했다.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인 만큼 영상의 일부분을 드론으로 촬영하여 높은 상공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색다른 연출을 해봤습니다.” 둘째로는 ‘제복’을 언급했다. “제복을 입고 촬영하여 영상을 통해서도 학과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통

해 학과 특성을 강조한 것이 타과와는 차별화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학술제는 ‘리커리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리커리움’은 학과 내 동아리로 전공과목 교재에 게재된 조주기능사 레시피를 보면서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보고 시음하며 부원들끼리 맛과 술의 정보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칵테일 관련 경연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국가기술자격증/조주기능사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며 관련 분야 진출로써의 다양한 발판으로 삼아왔다. 이은지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학회장은 “대학생하면 술을 빼놓을 수 없는 만큼,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칵테일 콘텐츠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학과는 ‘그래, 우리 함께’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인간의 생애 주기별 어려움을 상황극으로 보여주었다. 부모님을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 미래가 막막한 청소년의 모습, 취업난 속에 좌절하는 청년의 모습 등을 표현한 것이다. 최윤희 사회복지학과 학회장은 역할극을 통해 사회복지의 우리 곁에 함께한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 개인은 가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 체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려움 속에 항상 함께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 신한대학교 언택트 온라인 학술제

2020. 12.11 (금) 12:00 | 신한대학교 메인홈페이지 | 어디서나 누구든지 신한대 온라인 학술제 | 신한대학교



수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회복지의 역할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회복지사로부터 언제든 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임상병리학과는 학과 소개를 뉴스처럼 시작하여 2020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야기로 이어나갔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징,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등을 소개함과 동시에, 이를 학과 특성에 접목시킨 것이다. 채혈 실습을 하게 될 1, 2학년 학생들을 위해 실제로 채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안옥진 임상병리학과 학회장은 “이번 학술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임상병리사가 하는 일이나 진로 방향을 중점으로, 학과 및 학교생활이나 다가가기 어려운 교수님들과의 친밀감 조성을 취지로 진행했습니다.”라며 프로그램 취지를 밝혔다.

황성현 디자인학부 학회장은 디자인 학부 학술제가 타 학과의 학술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1학년 학생들의 전공 선택 과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선후배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학술제 영상을 통해 1학년 학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학술제는 처음으로 공간, 산업, 패션 디자인학과가 함께 준비한 영상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년 학술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같은 학과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콘텐츠들이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이번 학술제를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뜨거운 열의로 자신들의 역량을 발산하는 신한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류재경 학생처장은 2020년 학술제에 관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최초’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번 온라인 학술제를 진행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모험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아직 시행하지 않은 첫 번째 도전이기도 한데, 학술제를 향한 우리 학생들의 열의를 보고 학생처장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최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 나아가 우리나라의 온라인 콘텐츠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 기자, 조수빈 기자





# 더 나은 대학 생활을 위한 길잡이, 학생상담센터 '비대면 상담'

더 나은 대학 생활을 위한 길잡이, 학생상담센터 '비대면 상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전문적이고 안전한 상담으로 학생들에게 큰 도움 줘



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에 대한 제약 등 힘든 상황이 끊이지 않자 우울감이 극대화되어 상담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신한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역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어려운 부분을 공감해주고 치유해주고자 비대면 상황에 맞춘 '비대면 상담'과 함께 많은 노력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신한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존 대면상담을 비대면(전화/온라인) 상담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다.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에서 받고 싶은 심리검사나, 개인 상담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학생들과의 연락을 통해 상담 진행날짜가 결정되고, 그 후 줌이나 전화통화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이 이어진다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은 크게 일대일로 15회 이내, 50분 동안 진행되는 '개인 상담'과, 진로학습, 성격, 정신건강에 관련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심리검사',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의 효율 증진, 정신건강, 진로와 관련된 '집단상담'의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이외에도 온라인 검사와 관련해 CST 성격강점검사, MLST-2 학습전략검사, U&I 학습유형검사, 자아가치관 검사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 신청을 통해 해석 상담이 가능하다.

비대면 상담은 학생들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활용, 접근성 용이, 상담에 대한 적은 부담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마주보고 앉아서 상담이 진행되는 대면 상담과는 달리 비대면 상담은 내담자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담자가 어떤 표

“요즘 코로나 블루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내가 학과에서 잘 따라가고 있는 건 맞을까? 이리다가 뒤처지는 건 아닌가?’라며 학업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믿고, 더불어 믿을 수 있는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유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한계를 느낀다면 학생상담센터가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와주세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블루 증상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생상담센터 김태훈 전문상담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

정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야기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생상담센터는 줌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이 진행될 때 전화상담보다는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며 줌을 이용한 영상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신한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지난 여름방학부터 9월 ‘성격 강점 검사’, 10월 ‘학습심리검사’, 11월 ‘가을은 나를 아는 계절, 자아가치관 검사’와 같이 매 달 특별한 테마를 설정하여 비대면 심리검사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상담이 이뤄졌으며, 지난 9월에 실시한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의 실시간 LIVE 경품 추첨은 많은 학생들의 재미와 호응도를 이끌어냈다. 교내의 생명지킴이 서포터즈 ‘신한gatekeeper 2기(블루밍키퍼)’를 선발해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생명존중 마라톤행사 등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으로나마 서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학생상담센터 김태훈 전문상담교수는 신한대학교 학생들에게 누구나 언제든지 학생상담센터에 방문하라고 말했다. “상담이라는 것이 ‘경신적이나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아픈 분들만 받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경우가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상담센터가 의료기관은 아니잖아요. 헬스, 필라테스, 요가가 신체에 문제는 없지만 더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상담도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러한 위기를 모두 잘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혼자서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처한 학생,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학생상담센터에 방문하기를 권유한다. 신한대학교 학생들 모두가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며 고민과 걱정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박희진 기자



# 멘토링에 스터디모임까지... 신한인, 상부상조의 즐거움을 배우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다는 의미를 가진 '상부상조(相扶相助)'는 신한대학교가 양성하는 신한인의 기본 소양 중 하나다. 신한대학교는 이를 기르기 위해 매년 '신한 멘토링'과 '신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동기와 선후배가 친목을 다지며 함께 학습하고 상금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로, 꾸준히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교내 프로그램 중 하나다.

선후배가 함께하는 '신한 멘토링'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을 캠퍼스 로망 중 하나는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것이다. 신한대학교는 공식적으로 같은 학과의 선후배가 만나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바로 '신한 멘토링'이다. 신한 멘토링은 매 학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2학기에 13기를 맞았다.

'신한 멘토링'은 선배와 후배를 섞어 그룹을 만들고 한 학기 동안 멘토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같은 학과의 선후배를 한 그룹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학과 내에서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주고받으며, 후배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선배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연습할

수 있다. 이것이 '신한 멘토링'의 두드러지는 장점이라면, 서로 도우며 친목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은 숨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한 멘토링'은 관계 형성과 학과 적응, 진로 고민, 대학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선배(후배)와의 관계를 맺고 싶은 학생들이 주로 지원한다.

멘토링 활동은 1, 2학기로 나눠 멘토 25명과 멘티 50명으로 구성된 진행된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에 활동이 이뤄지면서 2학기 멘토링 학생 수를 두 배로 받아 진행했다.

학생상담센터는 멘토링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예로 'MBTI 검사'와 '적성 탐색검사'를 들 수 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해석 상담을 진행해 자신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멘티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며, 멘토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각자의 장점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친다. 멘토와 멘티가 각각 참여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멘토는 '간담회'와 '감정 자각 활동 집단 상담'을 한다. 멘티는 '진로 적성 탐색 집단'과 '진로 흥미 탐색 집단' 두 가지를 진행하게 된다.



신한 멘토링 담당자 송은주 상담사는 가장 인상 깊었던 멘토링 사례로 실습 학과를 꼽았다. "1학년 때는 경험하지 못하는 실습 기관을 멘토와 함께 방문하여 미리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던 팀이에요. 멘토링 활동을 교내뿐만 아니라 외부 시설까지 활용했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꼽힙니다."

우리만의 학습방법, '신한 스터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택적 학습'이다. 사회 그리고 학교가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는 듣고 싶은 전공이나 교양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학습의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은 더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신한 스터디'가 바로 그 프로그램이다. 신한 스터디는 4~6명의 학생들이 한 과목을 선택하여 스터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재학생들의 학습능력 고취와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스터디 그룹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학습 방법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습득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자율적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신한 스터디'는 그룹 활동을 통해 다양한 학우들과 교류하면서 갈등 조정 및 대인관계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한 스터디'는 당해 학기 정규 개설과목을 모집 영역으로 잡아 학생들의 학습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학습계획서 중에서도 스터디 그룹 학습목표의 명료성, 그룹원 간 진행 방법 및 역할분담의 정확성, 신청서 작성의 성실성 및 진실성을 중점으로 본다. 마지막에는 최종 평가를 통하여 우수그룹을 선발해 우수 상금을 수여하기 때문에 스터디그룹의 활동이 잘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러한 자율적·협력적 학습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어려운 전공 과목 및 교양 과목을 그룹원과 함께 학습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서 팀워크 및 인간관계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정규학기 개설 강좌와 연계되어 스터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룹 스터디 학습활동을 통하여 전공 지식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019학년도 2학기 신한스터디 중 미디어 언론학과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 팀이 우수한 학습 성과를 냈다. 미디어 콘텐츠 팀이라는 것을 잘 살릴

수 있게 목표 설정과 활동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잘 정리하고 활동했으며, 최종적으로 '통일부 주관 통일논문 및 홍보 영상 공모전'에 지원하여 우수 상을 수여했다.

'신한 스터디'라고 해서 마냥 딱딱하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전공에서 혼자 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그룹 구성원과 함께 나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신한 스터디' 참여를 추천한다.

강슬비 기자



# 신한인, 신선하고 재미있는 행사를 경험하다 학과마다 다양한 비대면 이벤트 진행

슬기로운 집콕생활, 방구석 사생대회, 매달 공모전까지

코로나19 여파가 심해지면서 각종 대면 행사들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활기찬 대학생활을 기대하고 있던 신입생들은 물론 재학생들까지도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대학교의 일부 학과에서는 대면 행사보다 더 신선하고 재미있는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2캠퍼스(동두천캠퍼스)의 국제어학과는 '기말고사 온라인 이벤트'와 '슬기로운 집콕 생활', '배달음식 사진제', '한가위 이벤트'를 진행했다. 기말고사 온라인 이벤트는 처음 맞는 온라인강의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였다. 이는 국제어학과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비대면 행사임에도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이후 진행된 배달음식 사진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행사이다. 음식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이벤트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가 가능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국제어학과 임예진 학생회장은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여율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사실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학우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실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많은 관심과 참여들로 뿌듯했는데요.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제어학과 학생회장,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 캠퍼스(의정부캠퍼스)의 글로벌관광경영학과는 사랑, 화합, 우정 그리고 소망이라는 4가지 주제로 '꿀비4랑' 비대면 행사를 진행했다. 신입생들을 위한 '사랑' 행사에서는 학과 및 학교소개와 Q&A 영상 등을 제작해, 영상의 소감을 남긴 학생들을 대상으로 '꿀비 신입생 키트'를 선물하였다. 또한 '화합'을 주제로 '글관이든 물어보살' 행사도 진행해 진로, 친구 관계 등의 고민을 가진 사연자에게 조언과 상담을 하며 학과의 유대감을 증진시켰다. '우정'과 '소망'이라는 주제로는 방구석 사생대회 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들이 가지는 학교생활에 대한 로망이나



그리움을 글과 그림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로써 학생들은 서로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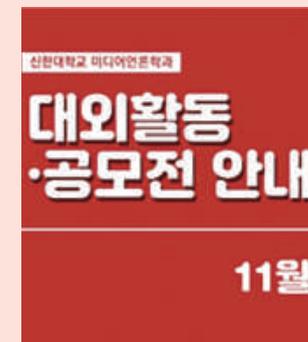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의 이은지 학생회장은 위 행사에 만족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비대면 행사는 기존의 대면행사와는 달리 특별한 행사들과 간단한 참여로 진행되어 반응이 좋았습니다. 진로 가이드북을 만들어 전달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진로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 속한 기업들의 기본 정보부터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조언까지 담아 제작했습니다. 진로 가이드북으로 학생들의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냈고, 저희 학생회는 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고민에 먼저 귀 기울이겠습니다."

제1캠퍼스(의정부캠퍼스)의 미디어 언론학과는 행사로는 '말모이 작전 대회', '리그 오브 방콕러', '매달 공모전'과 '대회 안내'가 있었다. 말모이 작전 대회는 한글날에 맞춰 진행된 행사로 언론학과 특성을 잘 살린 행사이다.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학과인 만큼 공모전과 대회 활동을 중심으로 이벤트를 기획했다.

미디어 언론학과와 비대면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이에 이하는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흥미와 스펙을 모두 잡을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학과 특성 상 행사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높은 참여율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관심을 가질 주제와 상품으로 행사를 만들거라 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학과 특성에 맞춰 참신하고 새로운 비대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의 세 개의 학과 모두 학생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지 생각해 행사를 구상했다. 의도치 않게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어색한 1년을 보낸 학생들에게 비대면 행사는 활력을 불어넣어주었다.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비대면 행사로 각 학과의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었다. 이에 신한대학교 제1, 제2 캠퍼스의 행보가 기대된다.

박희진 기자, 이정민 기자



# 간호대학,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획득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 국가가 공식 인정 의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교육과정과 성과, 모두 양호” 판정

신한대학교 간호대학(양승희 학장)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획득했다. 간호대학은 2020년 9월 24일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11월 4일 현장 방문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3주기 평가는 신한대학교로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평가라 더욱 의미가 있었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간호학생의 성과를 지원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성과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여건 등이 국가, 사회, 간호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제도이다. 인증평가 결과를 입시요강에 공식하게 되어 있어 대학 입학 경쟁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평가이다.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와 교내 주요 행정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기반으로 대학본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비해왔다.

간호교육인증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학과 자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증 기준집에 맞춰 학과 비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교육성과 등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지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게 평가받는다. 평가에 필요한 외부 임상실습이 코로나19로 인해 불가능해지자, 간호대학은 가상 임상현장의 상황을 실습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실습실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 교육 스튜디오를 구축하였다. 또한, 학과적응, 인성함양, 취업 등 30여 가지가 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짜임새 있게 인증평가에 임했다.

간호대학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복지 시설에 대폭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등 학생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먼저 간호대학 1층 벽면 전체를 북 카페로 만들어 전공도서뿐만 아

니라 약 1,300여 권의 교양도서를 구비하였고, 맞은편에는 갤러리로 꾸며 교육·문화·휴식공간을 마련하였다. 추가로, 학생들이 학생휴게실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니클라이너를 배치하였고, 1층 강의실 앞에는 노트북 사용이 편리하도록 스크린을 설치한 스터디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학생들은 편히 휴식을 취하며 학습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간호대학 양승희 학장은 “평가준비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심층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보다 객관화된 시각으로 간호교육을 재점검할 기회를 얻었으며 질적인 부분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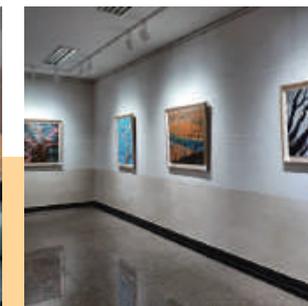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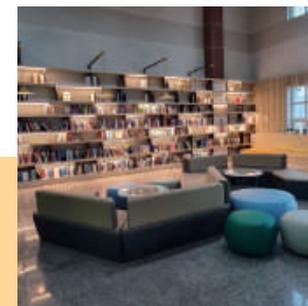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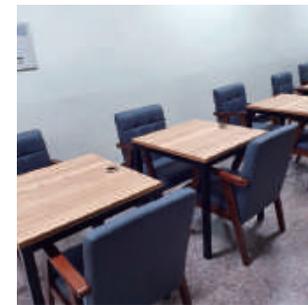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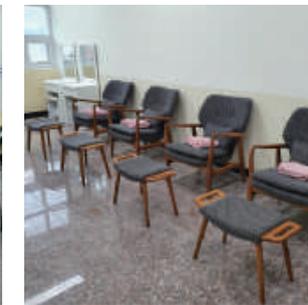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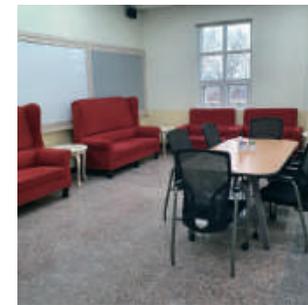
간호대학은 이번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하여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선보였는데,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시대에 대비한 노인분야, 국제간호 특성화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양승희 학장은 특히 보건의료취약지인 경기북부의 보건의료를 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포부를 남겼다. 더불어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더 발전시켜 경기권에서의 선두를 달리는 간호대학이 되도록 더욱 더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대학은 앞으로 펼쳐질 세계화 시대에 맞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단기간에 자율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차원의 대학발전 모델로 등극하고 수도권외 새로운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또, ‘세계속의 간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임상 경력을 보유한 교수진을 채용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첨단 의료기관들과 교육 협력

을 통해 선진 간호문화를 정착시키고 보건의료 국제화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이번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간호대학은 교육과정 및 실습실, 학생 복지시설 등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여 크나큰 발전적 도약을 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대학본부 및 간호대학 교직원들의 노력과 준비 과정이 없었다면 현재의 간호대학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도 간호대학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한다.

최하민 기자



# “코로나 시대 열정과 희망 지폄다” ... 사상 첫 온라인 태권도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2020년 신한대학교 총장기 대회,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  
시범·태권체조 부문 694명 참가 '전자채점'  
강성중 총장, “온라인 대회 장점 살려 다른 스포츠대회 본보기 될 것”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은 8월 3일 참가 신청을 시작으로 8월 30일까지 27일간 진행된 2020 신한대학교 총장기 온라인 전국태권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신한대학교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새로 개발한 온라인 전자채점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한, 태권도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도자들의 축하 영상 등 여러 콘텐츠를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태권도대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많은 태권도인들의 열정이 침체될 뻔 하였으나, 참가 신청

부터 심사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본 대회를 통해 태권도인들은 다시 한번 열정과 희망에 불을 지필 수 있었다.

2020 신한대학교 총장기 온라인 전국태권도대회는 국내 첫 온라인 태권도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신한대학교는 그럴수록 더욱더 철저히 대회를 준비했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유튜브'라는 친숙한 플랫폼을 이용해 별 탈 없이 대회를 끝마쳤다. 이렇게 참가자와 시청자들에게 미래비전까지도 제시한 2020 '신한대학교 총장기 온라인 전국태권도대회'는 새로운 스포츠대회의 모습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시합 영상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평가단이 해당 영상을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소규모 대회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시범부문(개인전, 단체전) 635명, 태권체조 부문 59명으로 총 694명이 참가해 각자의 기량을 뽐냈다. 29일과 30일에는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들의 영상을 심사했고, 참가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경기 영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댓글 창을 통해 다른 참가자와 시청자들이 조직위원회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하였다. 실시간 심사 및 댓글 소통은 프로야구를 관람하는 듯한 효과를 주어 참가자와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체 경기 영상은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대회 사무총장 최상진 신한대학교 태권도교육연구원은 “전국의 시범을 하는 태권도 선수들이 우리 대학의 대회로 인해 개개인의 실력을 발휘하여 좋은 성적이 나오길 바란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힘든 시기에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더불어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도 “2020년 ‘신한대학교 총장기 온라인 전국태권도대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되어있는 태권도계에 열정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했다”며,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태권도대회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모든 스포츠대회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대학교는 앞으로도 온라인 대회의 장점을 살려 지속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



‘전국1위’ 취업률에 빛나는

## 신한대 토지행정학과

서울지적직 공채시험에서

최다 합격에 수석합격까지...

경기도, 국토정보공사에도 무더기 합격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가 2020년 서울시 지적직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6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여 전국 1위 합격률을 달성했다.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매년 두 자릿수 공무원, 공사 합격생을 배출하여 명문 학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적’이란 땅에 대한 기록을 일컫는 말이다. ‘지적 공무원’은 지적측량검사, 공시지가, 토지 거래, GIS 업무, 새 주소 업무, 지적재조사 사업 및 토지 이동 업무, 민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적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어도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종합적 토지행정을 수행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지적학, 지적측량, 지적 법규, 토지정보 체계 등 학계를 학습하는 학과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의 도로명주소 업무 확대 등으로 공무원, 공기업, 부동산, 공간 정보기업의 수요가 꾸준히 요청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는 수도권에 유일한 4년제 토지행정 전문 학과이며 토지행정학, 지적학개론, 공간정보개론, 부동산학개론을 1학년 때 이수함으로써 토지행정의 기본을 학습한다. 이후에는 부동산, 지적 기초 측량, 지적 법규, 드론 및 사진측량, 지적 및 토지행정 실무, 토지행정 및 부동산 정책 세미나 등의 전공을 배운다.

전공 커리큘럼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인증하기라도 하듯, 토지행정학과는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매년 두 자릿수 공무원과 공사합

격을 배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특강, 관련 기관의 현장 견학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취업 후 토지행정 전문인의 자세와 역할에 대하여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는 우수한 인재를 진출시키기 위해 토지행정 전문 지식을 갖춘 특성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에 2018년도 서울시(2명), 경기도(2명), 한국 국토정보 공사(12명) 총 16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다. 2019년도에는 서울시(5명), 경기도(7명), 한국 국토정보 공사(4명) 총 16명의 합격생을, 2020년에는 서울시(6명), 경기도(10명), 한국 국토정보 공사(1명) 총 17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다. 최근 3년간의 합격 현황을 비교해 봤을 때 토지행정학과와 취업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서울시와 한국 국토정보 공사 합격생에게 축하를 보낼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서울시 합격생 중 17학번 4학년 서동빈 학생, 한국 국토정보 공사 합격생 중 15학번 임문택 졸업생이 수석 합격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는 것이다. 이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감동과 귀감이 되었다. ‘수석 합격’이라는 것은 전국 1위의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와 위상을 더욱 높여주었다.

토지행정학과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시도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2020년 11월 24일 개최한 제3회 ‘서울특별시 드론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는 20학번 1학년 강민화, 박소영 학생이 출전했다. 이들은 ‘MY’라는 팀명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하철 안전점검’에 대한 제안을 선보였다. 총 36개 팀이 출전하였고, 6개의 팀이 수상하였다. 그중 이들이 장려상이라는 좋은 성과를 내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좇아가는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은 “토지행정학과는 수도권에 유일한 4년제 토지행정 전문 학과로서 그 역할이 매우 기대되는 학과이며 앞으로도 학과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토지행정학과는 대한민국 최고의 토지분야 공공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학습 기반 조성기, 토지분야 공공인재 양성기, 토지행정 인재 양성 선 순환기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강슬비 기자



### 2020년 서울시 공무원 합격 1위

김민호, 신민호, 지용석, 최재희, 최준혁 / 29명 중 6명 합격으로 전국 1위 합격을 달성

김하영(양주), 박태양(성남), 안경남(연천), 양은진(양주), 이주영(광주), 이한성(포천), 이화평(하남), 최윤규(양평), 최해주(가평)

3년 연속 매년 공무원 · LX공사 두 자릿수 합격생 배출(18년:16명, 19년:16명, 20년:17명)

# 면역력 증강 건강보조식품 K-POWER 뜬다

- 신한대 바이오 R&D사업단, 한의학계 처방을 나노기술 통해 개발
- 코로나 예방 및 조기 치료에 기여... 부작용 우려 없이 면역 반응 지원
- 인도네시아 자매대학에도 마스크와 함께 기증... 해당 대학 "강 총장님 감사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다양한 바이러스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신한대학교는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전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한대학교 부설 바이오R&D사업단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이 덕분에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생약재를 나노 처리한 'K-POWER'가 개발됐다.

신한대학교 바이오R&D사업단은 올해 초에 발생한 코로나19(COVID-19) 치료과정 중, 중국에서 중의학적 치료법을 사용한 90%의 환자에게서 임상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양의학적 치료와 중의학적 치료를 결합할 경우 치료 효과가 증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한대학교는 이러한 한의학계의 처방을 나노기술을 통해 과학화하여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K-POWER'를 개발하였다. 이는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한약 처방에 현대 과학을 더한 것으로 호흡기계 증상 완화 효과 및 발열, 인후통 개선 효과, 근육통 완화 효과 등을 증명하였다.

나노기술(Nano Technology; NT)은 주요 영양성분 등을 빛, 산소, 수분, 온도 등의 외부요인으로부터 보호하여 손실을 줄인다. 이는 유용성 증대, 생리 활성증대, 안정성 증대, 표적조절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나노기술을 적용한 식품소재는 기존의 식품소재에 비하여 크기가 감소하고 표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체 내 흡수율을 높이고, 생체 내 세포에 투과하기 어려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어, 생약의 영양분 흡수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K-POWER'는 이러한 나노기술을 한의 생약에 접목하여 맛과 질감 및 영양분 흡수향상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다.

'K-POWER'는 면역학적으로 항바이러스 작용을 주로 하는 NK세포의 활성화 등의 효과가 한국 한의학 연구원의 연구결과 및 각종 논문으로 입증되었다. 코로나19의 예방 및 조기 치료를 통한 증상개선 및 질병 회복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몸의 면역체계는 외부침입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방어하는 시스템이다. 면역계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요소가 최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영양소 결핍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신한대학교 바이오 R&D사업단은 개인 체질 또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없이 신체의 면역 반응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K-POWER'를 개발하였다.

주원료로는 '천궁 분말 / 황기 분말 / 계피 가루 / 칩가루 / 창출 뿌리줄기 분말 / 굴겉질 분말 / 배초향 분말 / 감초 분말 / 참당귀 분말 / 인동 분말 / 홍콩 백합 비늘줄기 / 사인 씨앗 분말 / 황금 분말 / 건강 분말 / 대추 분말'을 사용했다.

주원료로 쓰인 황기는 다한증 개선, 기억력향상, 혈액 순환에 우수하며, 단맛을 내는 역할은 물론,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폐와 비장에 기를 보호하는 효능을 낸다. 연교는 항바이러스 효과, 항염증 효과, 항균작용, 혈압강화작용,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에 효능을 보인다. 당귀는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도와 혈액에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 수족 냉증 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뇌의 독성물질을 감소시켜 뇌 기능 활성화, 노화 방지, 기억력감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한, 사이토카인의 높은 생성과 함께 마우스 림프종 세포주의 생존이 억제되어 암세포 생장 억제에 효과가 있다.

위 재료들로 개발된 'K-POWER'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항암효과 및 항산화력이 강한 세레늄, 아연, 마그네슘,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칼슘 등 건강에 좋은 무기질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간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뇌세포 면역력 증진 효과(알츠하이머 치매 억제 효과, 어린이 집중력 강화 효과,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효과) 등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

'K-POWER'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일상생활에 지쳐 몸과 마음이 힘들고 기혈이 모두 상했거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체내에서 허함을 느낄 때, 기가 모자라 저절로 땀이 많이 날 때,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피곤할 때다. 이러한 경우 'K-POWER'를 섭취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면역력과 체력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신한대학교는 이러한 효능을 가진 'K-POWER'를 지난 5월 30일에 일회용 마스크와 함께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

에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하여 자카르타 소재 자매대학인 「Business&Informatics Institute Kosgoro 1957」 대학으로 전달되었다. 이는 당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추세에 놓인 인도네시아에 구호 물품을 지원해, 바이러스 전파 예방 및 면역력 증진을 돕기 위함이었다.

강성중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 나라의 학생들에게 일회용 마스크와 신한 K-POWER를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바이러스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힘쓰고 노력하여 인도네시아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Business&Informatics Institute Kosgoro 1957」 대학교 아궁락소나 이사장은 "인도네시아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마스크와 K-POWER를 기증해 주신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고 전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출하였다.

조수빈 기자



# 대담(大膽)한 기자들의(對談)한 이야기

비대면 수업에 대한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전국 대학의 전 학기 수업방식은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 원격 수업 등으로 진행되었다. 신한대학교는 녹화 강의나 ‘줌’, ‘웹엑스’ 등의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실험, 실습, 실기 등 일부 과목들은 대면 강의를 이루어졌다. 이제는 온라인 수업이 표준 수업 방식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한대학교 역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였다. 신한대학교 기자들은 전례 없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서 느낀 점, 각 강의의 장단점들을 이야기해보았다.

## ■ 비대면 강의의 장점

〈김민주 기자〉 저는 자신의 일정에 맞춰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시간에 들 수 있다는 점이 대면 강의와는 다른 비대면 강의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박희진 기자〉 또 자신의 일정에 맞춰서 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에 제약 없이 자신이 듣고 싶은 장소에서 강의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조희지 편집장〉 대면 수업을 할 때는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녹음해서 나중에 다시 들곤 했는데 녹음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문자나 전화, 핸드폰 알림이 울리면 녹음이 끊겼었어요. 그렇게 되면 끊겼던 부분을 놓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녹화 영상으로 시청하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영상을 틀어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다시 볼 때 영상을 빨리 감기 할 수 있어서 시간 절약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정민 기자〉 비대면 강의에는 녹화 강의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실시간 강의를 포함해요. 이 중, 실시간 강의는 녹화 강의와는 다르게 교수님과 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되어 비대면 강의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해진 기자〉 먼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의 입장에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비대면 강의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습이 없는 학과 이기에 비대면 강의와 대면 강의의 질적인 문제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 이 점에서는 비대면 강의를 매우 편하다고 생각해요.

〈조희지 편집장〉 수강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과목들을 비대면 강의 청강을 통해 들 수 있다는 점도 참 좋았어요. 비대면 강의는 학점 이외의 강의도 청강이 가능하기에 학점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이 평소 듣고 싶거나 궁금했던 강의를 보다 흥미 있게 수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점을 이용한다면 다음 학기에 수강할 과목을 미리 공부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하민 기자〉 저는 심리와 관련한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같은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 교수님과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는 사람이 아니기에 학생 개인의 속 깊은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터놓고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도 학생들의 깊은 이야기를 듣게 돼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 ■ 비대면 강의의 단점

〈박희진 기자〉 신입생들은 흔히 캠퍼스에 대한 낭만을 가지고 있죠. 10대를 벗어나 20대 성인으로서의 학교생활은 상당한 기대를 안겨줄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동기와 선배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 생활은 강의를 열심히 수강하는 것은 물론, 이외에도 학교를 통해 얻어 갈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얻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죠.

〈박해진 기자〉 회진 기자의 말처럼,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지기에 학생들은 학교에 올 기회가 없어졌어요. 대면 강의와 같은 등록금을 내는데도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함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민주 기자〉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실습 학과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대면으로 강의를 이루어지면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지만,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지기에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대면 수업을 했을 때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렇기에 수업의 질이 떨어져 배움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실습 학과는 대면 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강슬비 기자〉 마찬가지로 실습이 필요한 학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밀린 진도를 한 번에 나가려다 보니 따라가기 벅찬 부분이 있었고, 한 번에 많은 내용을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만큼 실습이 필요한 학과는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처음 겪는 시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차이를 메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석현 기자〉 대면 강의에서 비대면 강의로 전환된 실습 과목 중 조별로 과제를 진행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강의 자체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결국 조원들끼리 모여서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모순점이 있었어요.

## ■ 대면 강의의 장점 & 우리 학교 방역 수준

〈김민주 기자〉 계속된 비대면 강의를 수강하다 보니 오랜만에 대면 강의를 함으로써 동기들을 만날 수 있고, 교수님도 학생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심에 흥미로운 수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박희진 기자〉 방역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2캠퍼스를 통학할 때 셔틀 버스를 이용해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서서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좌석에 맞게 학생들의 수를 조절하고 서서 타는 학생들이 아예 없게끔 통제해요. 차량에 탑승할 땐, 학생증을 이용하여 신한대학교 학생임을 증명해야 해요. 대면 강의 전에는 강의실을 소독하고 한 강



의실마다 손 소독제가 필수로 구비되어 있어서 체온 측정 후,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들어가게 되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조희지 편집장〉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 각 수업의 발열 체크 도우미가 체온 측정을 한 뒤, 강의실에 출입이 허가돼요. 이 과정에서 체온이 37.5가 넘으면 학과 사무실에 방문해 재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각 강의실의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대학교 정문 이외의 문을 개방하지 않아 출입을 원할 때는 정문에서 발열 체크를 한 뒤에 입장이 가능해요. 한 외부인이 발열 체크 줄을 기다리지 않고 출입을 하려 한 경우가 있었는데 체온을 측정해 보니 체온이 높게 나온 경우가 있어, 발열 체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어요.

〈김민주 기자〉 회지 편집장이 말한 정문의 발열 체크 기기가 초기에는 한 대였기 때문에 줄을 길게 서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문의 발열 체크 기기가 총 3대로 늘어나 원활한 발열 체크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조수빈 기자〉 교내에 QR 코드를 통해 방문 기록을 체크하는 건물도 있어요. QR 코드 인증 뒤, 체온 측정까지 완료하면 스티커를 부착해 주어 건물 출입을 가능케 했어요.

〈강슬비 기자〉 강의 면에서는 비대면과 다르게 바로 의사소통이 되어 강의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른 학생들과 작품을 공유하고, 빠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학과 특성상 중요한데, 이 점은 비대면 강의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대면 강의의 단점

〈이정민 기자〉 대면 강의를 수강하다 보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어서 이러한 경우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수빈 기자〉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키라고 하더라도 여러 지역의 각각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한곳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모든 과목이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겨우 한 시간을 들으러 학교에 와야 하는 경우도 생기곤 해요.

〈김석현 기자〉 코로나 사태로 수업 운영방안을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로 병행하게 되면서 녹화 강의에서 실시간 강의 혹은 대면 수업으로 변경될 때가 있었는데 수업 관련 공지가 늦어지거나 강의실 위치에 대한 전파가 잘못돼 혼란을 겪은 적도 있었어요.

〈조희지 편집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 강의실에 20명 이하의 학생만이 출입 가능해요. 따라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60명일 경우, 20명씩 3개의 분반으로 나뉘어서 수업이 진행돼요. 이 경우에 한 분의 교수님이 동 시간대에 3개의 분반을 옮겨 다니며 강의를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업에 차질이 생기고 시간 분배가 알맞지 않게 되어 수업의 흐름이 끊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비대면 교육의 장점으로 학교까지 오고 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필요할 때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힘든 지금, 교육 현장에서의 온라인



수업은 불가피한 수단이 되어 버렸다. 그저 지금의 경험들을 비단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닌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태도로 임한다면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신한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힘을 내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대면 강의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신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1년 간의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그동안의 언택트 생활을 발판 삼아 미래를 계획하고, 코로나 이전의 학교 일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비대면 대학 생활에서 누군가의 강요로 삶을 살아가기보다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계획하여 실천하는 삶을 꾸린다면 더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조수빈, 김석현 기자



# 현실적으로 재해석된 사랑

- 현대무용가 아크림 칸에 의해 재창조된 발레 연극 <GISELLE>을 보고 -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시인 고티에의 대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랑받는 고전 발레, <GISELLE>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지젤'은 극 중 주인공의 이름으로, 사랑스럽고 밝은 이미지를 안겨준다. 춤과 노래를 사랑하는 순박한 시골 처녀 지젤이 시골 총각으로 신분을 숨긴 알브레히트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이들 앞에는 신분의 차이라는 커다란 벽이 존재하는데, 알브레히트는 그 벽을 깨버릴 용기가 없어 지젤을 버리고 귀족 약혼녀에게로 돌아간다. 지젤은 이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끝내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한 지젤은 죽음을 시작으로 숲속의 요정 '윌리'가 된다.

한편, 지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알브레히트는 큰 후회를 하며 지젤의 무덤을 찾아간다. 숲속의 요정들은 지젤을 찾아온 알브레히트를 보고 분노한다. 이에 알브레히트에게 복수하려 하지만, 지젤은 동이 틀 때까지 그의 곁에 머물며 알브레히트를 지켜낸다. 지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죽어서도 알브레히트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영국의 인기 현대무용가 '아크림 칸'은 위 내용을 더욱 아름답게 재창조했다. 아크림 칸에 의해 재창조된 <GISELLE>은 원작과 차이를 보인다. 먼저,



# 복수극

c u l t u r e

캐릭터 설정이다. 원작에서는 그저 사랑밖에 모르던 평범한 시골 소녀였던 지젤은 아크림 칸에 의해 자유와 신분 상승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용감하고 세속적인 의료공장 난민 노동자로 변신했다. 숲속의 요정 '윌리'도 역시 재창조 되어 공장사고로 목숨을 잃은 여성 노동자의 정령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설정은 사랑과 배신에 대한 '복수'와 '증오'가 더욱 잘 드러나도록 표현되었다.

연출 면에서도 원작의 <GISELLE>과 큰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칸은 주인공 '지젤'의 캐릭터를 의료공장 난민 노동자로 설정하여 신분의 벽을 더욱 크게 강조했는데, 이는 무대 위 두꺼운 벽을 통해 더욱 크게 전달된다. 첫 장면에서부터 등장하는 이 벽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등장한다. 이는 등장인물들에게 넘지 못하는 신분의 벽이자, 그것을 부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한다.

이렇게 재창조된 <GISELLE>은 원작과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작품에는 분명히 각각 다른 매력이 존재한다. 특히, 칸의 지젤은 신분 상승의 욕심, 버림받았다는 배신감 등을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배신마저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세세하게 표현해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발레 <GISELLE>이 지금까지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스토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각종 드라마, 영화에 자주 언급되며, 꾸준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발레 <GISELLE>. 그동안 사랑으로 많이 힘들었다면, 원작 그리고 재창조된 <GISELLE>을 통해 희생, 복수, 용서 등 사랑으로 생겨나는 감정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지젤에게 공감하며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최하민 기자



# 〈모두를 위한 미술관〉에

c u l t u r e

# ‘개’를 초대하다.

## 국립현대미술관의 색다른 전시회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은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공공장소에 오기 힘든 반려동물을 미술관에 초청한다고 소개한다. 이 전시를 통해 지극히 인간적인 공간이자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미술관에 반려견을 초대하면서 현대사회의 반려의 의미, 우리 사회에서 타자에 대한 태도, 미술관이 담보하는 공공성의 범위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란 타이틀 아래 미술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 역시 그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모두’의 범위를 고민해보고자 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20년 9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한 달 간 반려견과 동반인이 함께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다.

반려견은 사회구성원에 속하는 걸까? 철저히 인간의 관점에서 여전히 반려동물은 인간의 소유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장소에서의 반려견은 용납되지 않는 존재로 받아들여기도 한다. 미술관은 그 목적 자체가 인간의 문화 향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반려견의 미술관 입장은 반려견을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질문을 던진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개와 인간이 미술관이라는 공공장소에서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건축, 운영, 상품개발 등 미술관을 둘러싼 많은 것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전시를 구성했다. 개의 지각과 인식, 습성과 감정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개를 위한 건축과 조경에 전문 건축가와 조경가가 함께 참여해 인간과 개 모두를 위한 미술관을 완성했다.

전시장에 입장하기 전 안내소에서는 강아지의 대변을 처리할 봉투를 미리 제공한다. 강아지의 특성에 맞춰 전시 감상에 차질이 없도록 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세심함이 보였다. 강아지와 동반한 관람객은 일반 관람객과 다른 동선으로 전시장에 입장한다. 입장하면 강아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조성되어있다. 말 그대로 관람대상인 강아지가 자유의지로 작품을 감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야외 전시공간은 다양한 색의 구조물들이 널찍한 거리를 두고 펼쳐져 있다. 이곳으로 입장한 강아지와 관람객은 자유롭게 구경하다 내부전시장으로 이동한다.

내부전시는 노란색과 파란색을 사용한 다양한 인공구조물과 영상작품들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조경가 유승종의 ‘모두를 위한 숲’은 전시관의 큰 틀을 차지하는 작품으로 실제 편백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직접 만지고 살펴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외에도 전시의 구성은 강아지의 시각에 맞추어 구조물의 높이를 낮추거나, 모든 곳을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도록 펜스가 없는 전시물을 제공한다. 강아지는 이러한 구조물 위에 올라가 이동할 수 있고, 관람객과 함께 영상물을 시청할 수도 있다.

해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가구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을 여전히 인간의 소유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반려동물을 소유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반려동물이 인간과 그 공간을 공유할 수 없게 선을 긋는다. ‘모두’에 속하는 생명체의 범위를 인간에 그치지 않고 비인간의 범위까지 확장하는 이번 전시는 인간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반려동물의 활동범위를 보다 넓히는 새로운 시도라 생각한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 사회가 인간 위주의 생활양식이 아닌 다른 생명체와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박해진 기자



#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는

# 영화, <담보>

“근데 담보가 무슨 뜻이에요?”

“다음에 보물이 되는 거”

사채업자 두석(성동일)과 종배(김희원)는 돈을 받으러 갔다가 돈이 없는 승이 어머니에게서 승이(박소이)를 담보로 데려오게 된다. 승이 어머니는 이 돈을 갚던 중 중국으로 압송이 되고, 승이 어머니는 두석에게 승이 큰아버지가 오기 전까지 딸을 맡아 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후 승이와 두석, 종배 세 사람의 특별한 동거가 시작된다. 특별했던 시간이 지나고 약속했던 승이 큰 아버지가 승이를 찾으러 오는데 여기서 두석은 좋지 않은 느낌에 승이에게 번호를 알려주며 작별 인사를 하게 된다. 알고 보니 승이의 큰아버지는 400만 원에 승이를 룬살롱으로 팔아버린 것이었다. 승이는 그곳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벽으로 던진 유리컵 파편에 얼굴이 맞아 피가 나기도 한다. 이를 알게 된 두석은 승이의 몸값 400만 원을 룬살롱 주인에게 주고 다시 데려온다. 그 후 승이는 자라서 어느덧 어엿한 대학생이 된다.

두석은 승이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승이의 친아버지를 만나게 해준다. 이에 승이는 두석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한다. “아빠, 혼자 두고 가버리면 어떡해. 아빠가 데려다 줬으면 데리러도 와야지” 두석은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린다. 두석은 승이를 데리러 가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그 후, 승이는 실종된 두석을 10년간 찾아 헤맨다. 영화는 두석과 승이가 가족이 되는 과정, 승이가 두석을 찾는 과정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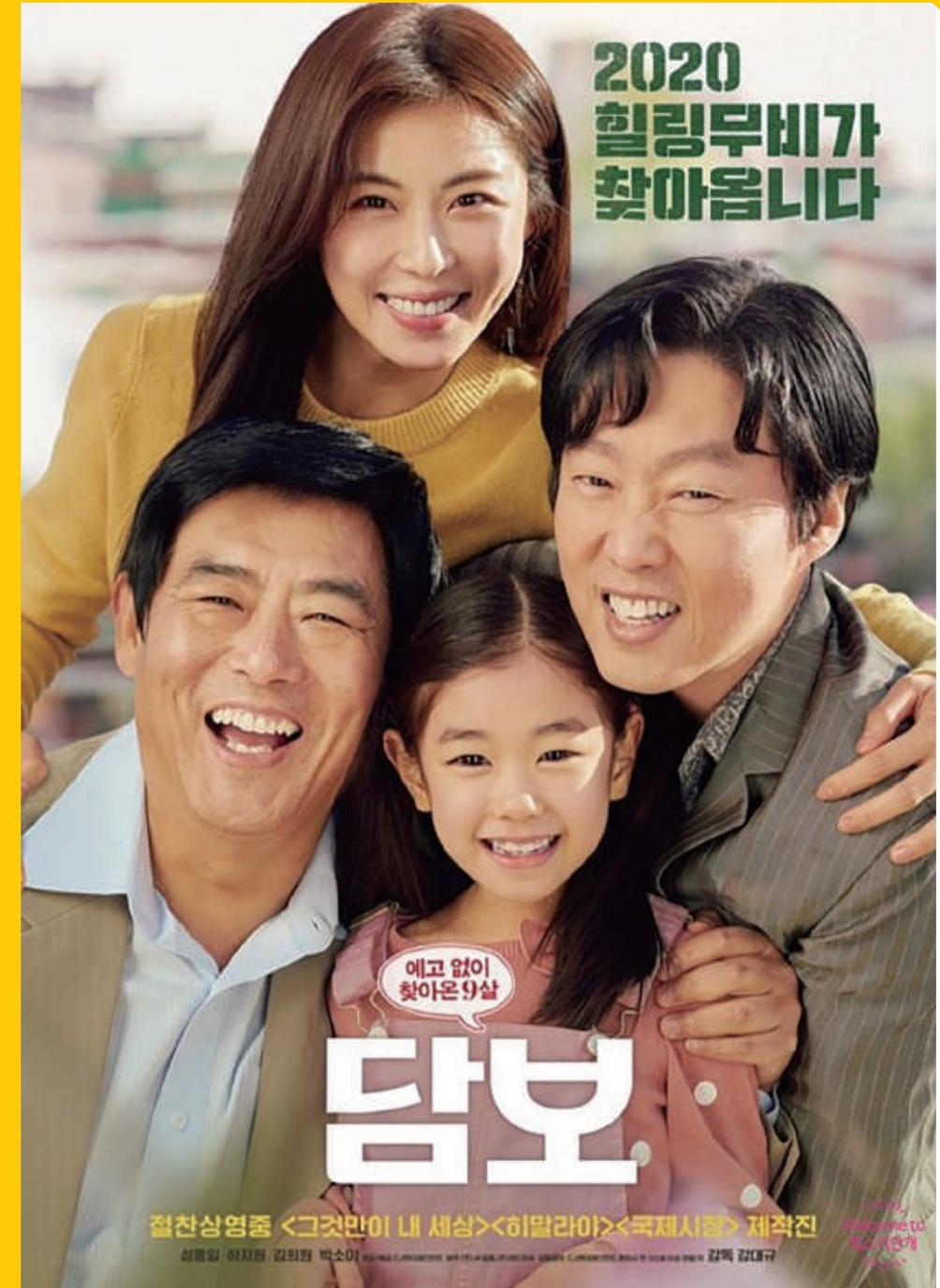
영화 <담보>는 2020년 9월 29일 개봉하여 1990년대를 배경으로 그린 영화이다. 개봉한 지 약 한 달을 넘긴 후 170만 명이라는 관객 수를 넘기며 손익분기점 돌파에 성공했다.

영화를 보면 세상은 그저 차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그러다 보니 집에만 있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실직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사람들과의 왕래 없이 집에 있기만 하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쉽게 지치며 감정이 메마르게 된다. 하지만 담보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 메마른 감정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분마저 느끼게 해준다.

종배는 승이를 다시 데려오자는 두석에게 “우리도 살기 힘든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고 말한다. 그러나 승이와 함께 하는 그들의 삶은 전과 다르다. 그들의 삶은 활력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해졌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생겼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가 있기에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자신의 존재 이유가 뚜렷해진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이처럼 따뜻한 사랑을 피하려고 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 익숙한 감정들을 나열한 전형적인 서사이지만 감동의 깊이는 충분하다. 감동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온전히 설득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배우들의 열연이다. 코로나와 추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추운 울겨울, 영화 <담보>를 통해 온기를 느끼길 바란다.

이정민 기자



SHINHAN  
UNIVERSITY

기술중심 교육 Super-Tec  
인성중심 교육 Super-Persona  
교양인양성 Super-Edu  
봉사정신 교육 Super-Serve



### 신한대, '2020년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우수개선 대학' 선정

신한대(총장 강성종)가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주관 「2020년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우수개선 대학」에 선정됐다.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우수개선 사업'은 대학의 교양교육 발전을 돕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후속 조치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신한대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교양교육 개선 의지, 컨설팅 이후 개선 성과, 우수 개선 사례의 효과성 및 지속성, 타 대학 활용 가능성 등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한대학교는 2020년도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우수 개선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우수대학 상패와 상금 3백만원을 받는다. 상금은 신한대학교의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



### (쥬스카이티제이, 신한대학교 대학발전기금으로 18,000,000원 및 덴탈마스크 10,000장 기탁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신한대학교 믿음관 세미나실에서 쥬스카이티제이와 대학발전기금 기증식을 가졌다. 쥬스카이티제이는 신한대학교에 5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으로 18,000,000원의 발전기금 출연과 함께 허브아로마 덴탈마스크 10,000장을 기증해 주었으며, 지역사회 협력 기여 및 지역산업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가족회사로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강슬비 기자



### 신한대, 2020 모두 다신나눔봉사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대학의 추구성원(교직원, 학생)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프로젝트, 대학 차원의 정기봉사활동인 '모두 다신나눔봉사활동'을 11월 9일부터 12일, 3박 4일간 진행했다. 신한대학교 "앓"품들이 '김장 나눔 봉사활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하는 가운데 경기북부의 주요 시·군(의정부·동두천·파주시, 연천군)의 기관들과 자원봉사자 100여명도 함께 참여해 우리 지역사회 100여개의 다문화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복지시설기관에 나눔을 실천하면서 더욱 뜻깊은 행사로 발전하였다.

박희진 기자



### 신한대 치위생학과, 금, 은, 동 수상

신한대학교 바이오생태보건대학 치위생학과(학과장 정성균 교수)는 국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 위생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고자 임상 실무와 연구 분야에서 많은 활동과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 결과 "구강건강과 치매 Part II - 치매국가책임제와 구강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2020년 한국치위생과학회 종합학술대회 학생학술포스터 부문에서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2팀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치위생학과 조한아 교수는 "치위생 연구 분야의 다양성과 통합적인 사고를 통한 임상적응의 가능성을 갖출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학문의 성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박희진 기자





### 신한대학교 코로나19 특별장학금(긴급재난지원) 전원 지급

신한대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덜고 학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장학금(긴급재난지원)을 지급하였다. 장학금액은 1인 100,000원이며, 학생 본인 계좌로 10월 30일까지 전원 지급이 완료되었다.

강성중 총장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범세계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경제위축과 외부활동 제한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특별장학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학 모든 학생들에게 미약하게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신한대학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꿈을 잃지 않고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교육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 선정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 지원 대상 237개교(4년제 138개교, 전문대 99개교)를 확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한대학교는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될 것이며, 대학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예산을 활용하여 비대면(온라인) 수업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방역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최형모 수습기자

이정민 기자



### 신한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자살예방사업’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 학생처 학생상담센터(센터장 조성심 교수)는 9월 10일 ‘2020년도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경기도 자살예방사업 유공자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다. 경기도는 자살예방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민간 유공자 10명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자살예방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번 2020년도 경기도 자살예방사업 유공자 도지사 표창 수여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으로 유공 표창을 전달했다.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은 “우리 대학 구성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빈 기자

###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졸업생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간호 8급 최종 합격〉

간호학과 최문정 졸업생(2020년 졸업)이 최근 실시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간호 8급에 최종합격했다. 최문정 졸업생은 “간호학과 재학 시절, 핵심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실습 훈련을 통한 반복적인 학습으로 실제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을 자신감 있게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신한대학교 간호대학의 지원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의 건강 유지 및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승희 간호대학장은 “2014년 간호대학으로 승격된 후 최문정 졸업생의 공무원 합격은 모범적인 선례로 남을 반가운 소식이다. 임상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간호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석현 기자



### 신한대, 도미니카공화국 원격봉사단 활동 운영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는 올해 6월 ‘2020년도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원격봉사활동(E-Volunteering)’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도미니카공화국 10대 임신 방지를 위한 E-Volunteering사업’의 프로젝트 봉사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원격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원국 파견 형식의 봉사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물리적 제약과 한계를 극복해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하는 신개념 봉사 프로그램이다. 봉사단원들은 현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활동, 진로개발교육을 진행하여 역량개발을 돕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 활동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했다.

박해진 기자

## 대학발전기금 기부자명단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신한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학과, 계열, 학교 지정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학술연구기금, 장학기금, 교육시설확충, 학술 도서구입기금과 기부자가 희망하는 특정 목적사업, 국제화기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신한대학을 위한 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계좌안내 :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 대외협력처 TEL. 031-870-3162~5 FAX. 031-870-3169

※ 발전기금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기봉	박은영	교양교육대학	이종원	(재)롯데장학재단
강미심	박정우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이주현	(주)대산엘리베이터
강성현	박진우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	이춘환	(주)비전엔지니어링
강수철	박현수	공간디자인전공	이현숙	(주)서울환경
고형숙	박현철	산업디자인전공	이현중	(주)스카이트이제이
고희정	배시애	교양교육대학	이훈	(주)스토리젤리
권영길	배영금	국제어학과	임승희	(주)아이원이즈
권영진	서석원		임애련	(주)오토기기
권운영	서수연	뷰티헬스전공	장윤태	(주)웨이미디어
김기순	서종원	임상병리학과	장인봉	(주)위드덴탈
김남용	성금단	사회복지학과	전경애	(주)진학어플라이
김남중	성기명		전국현	IC기계공학과 동우회
김민정	손형민		전영주	경기도치과기공사회
김보혁	송용호		정경옥	구끼구끼 민락본점
김봉석	송운홍	경제북부개발연구원	정봉희	대학원동문회17기
김상현	송정애	사회복지학과	정세훈	바로선병원
김세영	신경환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정우용	사)진로상담협회
김소민	신현곤	에너지환경공학과	정유찬	사단법인 사랑깊은돌
김시훈	양승희	간호학과	정인교	사단법인 한가람역사문화
김연아	오이균	토지행정학과	정한별	연구소
김용섭	유수평	국제어학과	조성운	센트론메디칼
김은희	윤미숙	치위생학과	조성재	연세후치과 이촌점
김정옥	윤창순		조우택	이마스타덴탈허브기공소
김준석	이광규	컴퓨터공학전공	주영훈	일진메디칼
김지명	이규태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진선범	주식회사 신한은행
김진경	이금숙	사회복지학과	차명순	주식회사 임포유
김찬호	이대규		최병호	주식회사 진조미식품
김창희	이대성	국제교류처	최봉국	청해ENV(주)
김향선	이대홍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최선영	청호나이스 의정부지사
김현우	이래곤		최승구	하이트진로홀딩스주식회사
김후환	이봉숙		최에스더	
남궁혁	이서연		최용수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남금자	이석재		최화식	임상병리학과
류재경	이용걸		홍동희	방사선학과
박광용	이웅배	뷰티헬스전공	홍수희	글로벌통상경영학과
박성모	이재은	교양교육대학	홍승예	바이오생태보건대학교학팀

##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동문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법인(기업) <input type="checkbox"/> 일반인(비동문)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 중복체크 가능			
	성명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주소 (사업장소재지)	필수항목은 법인세법 제24조 / • 소득세법 제160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며, 기부영수증 미 발급 기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후면 참조)		
	연락처			
	학적사항 ※동문만 기재	학과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직장명	부서명		직위
선택	E-mail			
	우편물 수령지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기부추천인	*여러명일 경우 학과명 또는 부서명 기재요망
약정	총액	금( )원 (₩ )		
	기간	20 년 월 일부터 총( )회 / 월( )원씩		
	기부금도	<input type="checkbox"/> 대학발전기금	(용도 미지정)   *학교에서 용도를 정하여 사용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지정발전기금
기부방법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GMS) / 휴대폰결제	입금자명	<input type="checkbox"/> 기부자명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동일하지 않은 경우(입금자명 : )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급여이체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약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대학교 모바일 홈페이지 ( <a href="http://m.shinhan.ac.kr/">http://m.shinhan.ac.kr/</a> ) 하단 '발전기금' 메뉴 클릭		
		별도의 급여이체 동의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필히 √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신한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Tel 031-870-3162~5 (Fax 3169)
- 우편 : (11644)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 대외협력팀

2021. 03 / 200호

# 편집후기

## 최하민 기자

이번 200호는 나에게 의미가 큰 호다. 코로나-19로 인해 순탄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단독취재하고 도움 없이 기사를 작성해 보았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항상 든든하게 지원해주신 이선민 교수님과 신문사 기자들 덕분이다.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발 벗고 나서 챙겨주신 이선민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와 준 기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 박해진 기자

졸업을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여한 신한 특독 200호는 대학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것 같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노력한 이선민 교수님과 8명의 기자들에게 너무 고맙다. 항상 밝게 맞아주어 수습 기자로 활동하는 내내 행복한 시간이었다

## 강슬비 기자

2020년, 신한신문사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기사를 작성한다는 실례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나를 흔들어댔다. 처음 해 본 취재와 인터뷰는 내가 이쪽에 흥미와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해줬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끊임없는 고민과 수정은 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처음해보는 것 투성이라서 편집장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한 전반적인 관리와 체계를 잘 이끌어 준 최하민기자님과 김민주기자님도 고맙다. 다사다난했던 200호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이선민 교수님을 비롯해서 9명의 기자들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게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그 안에서 한 단계 발전한 나를 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파이팅이다.

## 김민주 기자

작년에 함께 했던 기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200호를 드디어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빈 레이아웃을 채우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지만, 신문사를 위해 힘써주신 교수님과 다른 기자들 덕분에 200호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 김석현 기자

전공과목의 연장선으로 기사 작성과 글 쓰는 역량을 키우고자 신문사에 들어왔다.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보람을 느꼈고 기사를 작성할 때 했던 깊은 고찰을 통해 전문 실력이 조금은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이정민 기자

신문사에 들어와서 글을 처음 써봤는데, 경향이 많이 된 것 같다. 처음이라 서둘러서 버벅거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다.

## 박희진 기자

처음 참여한 200호를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 행복하다. 직접 취재도 하고 기사도 쓰면서 내 자신이 더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첫 기사를 쓰고 나서 느꼈던 감정은 앞으로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수고해주신 교수님과 신문사 기자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다.

## 조수빈 기자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학교생활을 비대면으로 보낸 시기에 신문사 기자로서 첫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과 다른 기자분들 덕분에 차근차근 배워 기사를 마무리 짓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

## 조희지 편집장

수습기자로 신문사 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편집장이 되었다. 나는 과연 시간이 흐른 만큼 성장했을까? 2020년은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던 것 같다. 이번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교수님들과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하며 다음 학기에는 더 열심히 활동 해야겠다.

